

로타리안으로서 미수(米壽)를 맞는 소감

총재특별대표 **금진호**
(한양로타리클럽)



한자로 八十八을 한 글자로 묶으면 쌀(米)자가 된다 하여 음력으로 88세 되는 날을 미수(米壽)라고 일컫는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매우 짧아서 61세에 이르면 12간지 같은띠로 한바퀴 돌았다는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여 환갑(還甲)잔치를 크게 벌려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들까지 초치하여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지금은 61세는 청년기로 분류되고 한참 일할수 있는 인생의 성숙한 연배로 특별히 이날을 축하하는 잔치 모임의 풍습은 살아있지 오래되었다.

나 역시 환갑에 해당하는 해에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혈기왕성하고 정치적 야망에 불타있던 시절이라 나로서는 평범한 하나의 생일로 지내고 싶었는데 나와 가까이 지냈던 두 친구가 우리 내외를 일본 큐슈를 한 바퀴 도는 여행에 초대해 줘서 유쾌하고 알찬 행사가 된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내가 미수의 나이에 도달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오래살았다고 최고 목표를 88세에 두고 이나이에 이르면 장수를누렸다 하여 인생의 마감 잔치인 미수잔치를 성대히 베푸는 풍속이 있었다. 물론 88세를 훌쩍 넘겨 백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만 비교적 장수했다는 사람들이 미수를 전후해서 이세상을 마감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만 예를 들어도 신현확 전총리, 민관식 전국회부의장, 김준성 전부총리, 이원경 전외무장관, 구평희전 무역협회장, 이분들도 미수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것이다

나는 평소 신념이 무슨 의식 잔치들을 미수날에 그리 좋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허례에 가까운 것을 삼가자는 편이어서 우리 직계 가족이 모여 간단히 저녁이나 먹자는 것 외에는 딱히 이른바 잔치행사를 극구 사양하고 또 그렇게 그날을 넘겼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 그것을 이글에서 소개하여 내 마음속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보이고자 한다

나는 3650지구 한양로타리의 성실한 평 회원이다.

1997년 9월 29일 모든 공식 생활을 대과 없이 마감하고 국제무역경영원 원장으로 있을 때 동료회원의 권유를 받아 한양로타리클럽에 가입하였다.

금년으로 20년을 넘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로타리안 생활을 체험하면서 그 동안 겪었던 수많은 모임 봉사활동 단체여행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쳐간다.

그동안 함께한 동료회원 역대 지구 총재 지구임원 존경스런 국제로타리 이동건회장 국제로타리 이사 재단이 사 등의 면모가 살아서 기억된다.

내가 입회할 당시만해도 한양로타리클럽은 우리나라 로타리클럽 외 종주(宗主)답게 회원수가 120명 그 회원의 면면은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가 망라되다 싶어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존칭을 생략하고 송인상, 정래혁, 정진숙, 유재흥, 민관식, 주근원, 김기형, 이한림, 장성환, 강신호, 유기정.. 이루다 거명할 수 없고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망라되었던 때에 제46대 회장을 역임하여 영광스럽게 이를 대 없는 경험도 하였다

내가 입회할 때 입회 인사말을 하라 하여 횡설수설

한 중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다

그것인 즉 “나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직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뒤늦게 봉사활동의 상징적인 단체인 로타리 운동에 발을 들여 놓았는고로 그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남보다 두 배는 더 열심히 해야 그 공백을 채울수 있던 거 같다”

우리 구락부 활동에 그런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이 로타리 운동이 더더욱 활성화되어 회원수도 늘어나고 총아의 봉사를 통하여 이사회를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하게 변모시켜 나갈것을 일관되게 염원하였었다.

동료회원과 인간관계를 파스하게 유지하여 서로 간 화목하고 친화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 나의 노력에 비교할수 없는 우리 클럽의 뜨거운 사랑을 한몸에 받고 그 감동과 고마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게 된 일이 생겼다

그것은 지난 2018년 12월 17일 우리 클럽의 송년주회에서 본인의 미수 축하연을 열어주었던 일이다

주회를 끝내고 2부행사를 진행된 미수연에는 그날따라 거의 전 회원이 출석하였고 나의 여러 시대에 걸친 사진들을 모아 전시하는 일 까지 화려한 진행이었다

우리 클럽의 전통인 금장 지팡이를 선물 받고 동료회원이 꽃다발 선물 등이 답지하였다.

여성회원들이 룡드레스로 의상을 통일하고 축하를 합창하였으며 남자회원은 나비 넥타이를 착용하고 많은 노래와 덕담을 선물하여 주었다.

이 날 행사의 압권은 우리 지구의 장세호 총재와 박수



부 차기 총재 두분이 바쁜 시간을 활용해서 임석하여 끝까지 함께해 주셨던 일이다.

장세호 총재께서는 감동적인 축사와 화환까지 전해주셨고 박수부 차기 총재께서는 축배말씀을 해주셨다. 참으로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감개무량하여 시종 가벼운 흥분속에 답례 말씀도 하고 말씀 가운데는 내 조부의 시작(詩作)일부를 인용하여 내 생각을 간접적으로 내비추기도 했다

其生也無益於世其死也無聞於後
生長老近於九旬做何事何業之有
生與死不免愧作

나는 사는 동안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지 못했고 죽어서는 내게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을 일 없도다.

태어나 늙도록 살아 어느덧 90을 바라보면서 무슨 큰 일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 말이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로지 뉘우침을 면하기 어렵네.

가족에게는 잔치 같은 것은 허례(虛禮)라고 말려왔는데 막상 우리 한양로타리 클럽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어 흐뭇하고 자랑스러워 가족에게도 소상히 소개했는데, 내자가 나를 쳐다보며 당신 대단하네 하며 행복스러운 표정을 보여줘 내 위상이 돋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